

절 찾는 관광객 늘어 마을 소득 '기대'



조영암 스님 휴집.

건봉사는 주변 산들이 연화형국이라 스스로 성스러운 울림을 지니고 있다. 28년간 엽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엽불원을 찾아가는 내 고향에, 목경하는 스님의 맑은 목소리와 목탁소리가 맴돌았다. 동행한 고성문화원 고문 윤용수 선생의 구수한 목소리가 감로수처럼 느껴져 마음으로 갈증을 달아내고 건봉사를 둘러보았다.

"건봉사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살아 있는 정토 불교의 시발점입니다. 임진왜란 때 6000여 명의 승병 훈련장이었고, 불명학교와 불립학교를 운영하며 신문화를 사하촌 사람들에게도 보급하였지요. 돈이 없는 아이들이 절집 문으로 공부를 하고 완전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요. 사찰이 번성했던 시기에는 3000여 칸의 가람이 있었어요. 세조의 원당으로 지정되면서 왕실에서 토지와 산림을 하사해 주어서 건봉사가 크게 되었지요."

절집은 시대를 건너오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기도 하였다. 신라 법흥왕 7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해 원각사, 도선 국사가 중수하여 서봉사, 공민왕 7년 나옹 선사가 중수하고 건봉사라고 하였다. 법당 안에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다. 당시 스리랑카에 3과, 우리나라에 12과가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강탈해간 것을 사명대사가 찾아와서 건봉사 불사리탑에 모셨다. 1986년 문화재재단에 모두 도굴 당했는데 법인이 자발적으로 8과를 돌려주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후손에게 화가 미칠 것

이라 경고를 하는 바람에 마음을 돌렸단다. 3과는 탑에 봉안하고 5과는 금교에 봉안해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건봉사 불사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민통선 통제구역에서 해제되고 복원불사가 진행되었다. 분명히 도굴행위는 악업인데 선업이 되어버린 셈이다.

"건봉사는 한국전쟁 이후 1989년까지 민간인 출입

대부분 사중담 농사 짓고 살아 수해에도 도지 감면없어 원성 보조금도 내년에 없어져 걱정

금지구역이라 군승이 관리를 해오다 다시 복원되면서 문화관광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능파교를 복원하면서 기단이 주저앉아 원래보다 좁게 복원되었어요. 사바세계의 고통을 불법으로 헤친다는 뜻을 지닌 능파교, 지금 기술로는 원래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또한 신라 발징 스님이 28년 동안 쉬지 않고 아미타불기도를 올리는 만일염불회를 주재하였다고 해요. 기도가 끝나는 날 기도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이 극락세계로 승천하였답니다. 그 전통을 이어 만일염불을 실천하는 자는 운동이 건봉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지요."

건봉사는 한국전쟁 말에 인민군이 후퇴 하다가 오대산 능선을 타고 집결을 하였던 장소다. 신고가 들어와서 폭격을 하였는데 인민군이 떠난 후였다. 아마도 떠나지 않았을 때 폭격을 했다면 영혼의 울음바다가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폭격으로 가람과 국보급 보물들이 소실되어 표교기능을 잃었다. 다시 절집이 복원되고 불자들이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포랑 포랑한 개울물소리로 더위를 씻고 돌 솥대에 앉아 있는 봉황에 대하여 묻는 내게 윤용수 선생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건봉사 범종을 복원하는 날 오색이 무지개보다 선명하게 하늘에 드리워져 사람들이 신기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징조라고 입을 모았지요."

옛날 건봉사 사하촌은 거진을 냉천리로 물이 차고 좋기로 유명했다. 마을에는 스님의 속가와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막걸리도 가도 있었다. 여관은 주로 자식을 못 낳아 절집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손님을 받아 장사를 했는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보시를 했다. 절로 봐야라 불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어 승과 속이 구별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냉천 막걸리는 지역의 곡주로 유명하였다.

지금 사하촌 해상리에는 사중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땅은 30%를 도지로 내고 경지정리가 된 땅은 40%를 내는데 근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5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와 누각.



부처님 진신사리 탑.

간에는 수해나 병충해를 입어도 절집 인심이 아박하여 도지를 감해주는 일이 없단다. 그나마 직불제라는 정부 보조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에 사하촌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다. 주지 영도 스님이 처음 건봉사에 왔을 때 해상리 사람들을 초청하여 절집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건봉사의 인심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해상1리는 32호 주민이 어울렁더울렁 산다. 골재 채취를 하는 석산에 가서 일을 하거나, 더러는 농사를 지어 부대에도 채소를 납품하여 소득을 올리고, 소를 키워서 아이들 학비에 보태며 부지런히 살았던 옛날이야기를 김부영씨가 들려주었다.

"우리 마을은 울력 정월 초이렛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어요. 제주가 되는 집은 미리 소나무가지로 표시를 해주어서 마을 사람들 발길을 끊지요. 건봉산

에 조그마한 사당이 있는데 남자들이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 제물로 하루 종일 동네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끝나면 떡과 음식을 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먹고 놀다 해거름에 집으로 들어오는 절날이를 즐겼습니다. 농부들의 공휴일인 셈이죠. 옛날에는 농사도 품앗이로 서로 어울려 지었는데 기계화가 되다보니 내 농사짓기에도 바쁩니다."

그래도 마을회관에는 항상 어른들이 모인다. 메밀 국수를 놀러먹기도 하고, 미꾸라지를 잡는 날에는 추어탕을 끓여 동네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조용한 산골마을에 건봉사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관광 소득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절집과 사하촌이 그동안 미뤄 두었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였다. **고성=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전통다시마장식품 손재화 회장

자연 햇살에 숙성시키는 전통장 고집 직접 장 담가 가져가는 체험장도 마련



사하촌 해상리는 '건봉다시마장식품'을 공동 운영하며 마을 아주머니들의 끈이 된 장 고추장처럼 공작아가고 있다. 적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없을까 생각한다. 농사지은 콩과 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다시마를 함께 전통

장을 만들어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로 콩을 끓여 매주를 만든다. 황토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킨 매주로 전통장을 담그는데 더 맛있는 내기 때문이다. 향아리에 담긴 장은 건봉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많은 햇살을 받아 아주머니들의 손맛을 우려낸다. 상품 화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손재화 부회장은 말했다.

"전통장은 공장제품과 비교할 때 좀 낡다. 짜다고 해서 싱겁게 했는데 처음에 맛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신맛이 돌아 팔리지 못하고 모두 버렸지요. 원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짜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에서 먹는 장과 그대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2년 태풍 무사로 게을름이 불어 마을이 허탈해 쓸고 지내지 않고 장항아리도 다 쓸어가 버렸지만 조금 남은 장을 팔아서 다시 목을 샀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들고 공기가 맑아 해상리는 장을 숙성 시키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소득이 없는 일에 7년 동안 매달리는 마을 사람들 성실성을 인정하였는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장민들기체험장과 홍보전시판매장을 지어주었다.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군부대 면회객들이 싹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두막 정자와 대형 주차장도 만들었다. 해상리 마을사람들은 장맛이 전국에 퍼져 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지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이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향균성, 소취성, 흡수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 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향균성과 소취 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향균력이 99.9% 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잠 솥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흡수속건성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 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수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수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처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뜯겨서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며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수성, 방습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벌세트 (여성:이벌,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벌세트 (여성:이벌,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총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계대 후문역 하차